

한국교회와 이단운동

김 병 원

I. 서론

예수님의 예언대로 (마 24:3-14, 23-28) 오늘날 사이비 종파, 이단 종파, 기독교의 탈을 쓴 비기독교적인 단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신자의 주된 사명은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이교 사상의 세력들에 대하여 기독교 진리를 변증하는 것과 동시에 기독교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선포하는 일일 것이다. 대다수의 신홍 종교의 근원이 기독교라는 사실은 더욱 신자의 신앙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Anthony A.Hoekema는 이단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요약한다. ①이단은 권위의 근거를 성경 밖에 두고 있다. ②이단은 은혜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를 거부한다. ③이단은

그리스도를 낮추어 평가한다. ④이단은 자기들의 공동체만 구원받는다는 배타적 태도를 취한다. ⑤이단은 종말론을 중요시한다.

이단 (heresy)이라는 말은 헬라어 ‘하이레시스’ ($\alpha\varphiηδ\varsigma\varsigma$)에서 온 것으로 ‘선택하는 행위’, ‘부착’을 의미했으며 나중에는 ‘행위나 사고의 흐름’을 뜻했고 결국에는 ‘철학적 원칙들’이나 ‘이러한 철학적 원칙들을 지닌 사람들’ 즉 ‘학파’나 ‘분파’를 의미하게 되었다(고전 11:19; 갈 5:20; 베후 2:1 참조). 롬 16:17; 고전 1:10; 11:18; 12:25; 딘 3:10 등에서는 ‘분파주의’를 뜻하고 있다. 이 이단이라는 용어는 이그나티우스 (Ignatius)를 시작으로 교부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점차 정통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형성되어 갔다. 한문에서 이단 (異端)이란 ‘꼴이 다르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단은 기독교의 진리인 성경을 부인하고 약화시키고 달리 해석하는, 성경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인간의 교훈과 지식을 첨가하여 다른 복음, 다른 교훈으로 오도하는 행위인 것이다.

II. 이단의 요소 분석

첫째로 성경을 가감하면 이단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있어서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며 66권으로 된 하나님의 책으로서 완전히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완전히 충만히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바로 이단이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면 이단이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구원함을 얻는다. 이것은 성경의 제일 되는 원리요 주제이다. 비교종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라고 공박한다.

골로새서에 나타난 이단적 요소를 조사한 Findlay는 거짓 교훈의 성격을 여섯 가지로 요약한다.

- ① 철학적 성격을 띤다.
- ② 유대주의자들이다.
- ③ 천사를 숭배한 자들이다.
- ④ 모세 율법을 초월하여 금욕적 규칙들을 주입시키고 장려하였다.
- ⑤ 그들의 교훈 체계는 그리스도의 위대성과 권위 및 그의 구속의 충분성을 제한하려고 했다.
- ⑥ 그들은 기독교 교사들이며 기존 기독교인들을 보다 더 높고 고상하며 안전한 영적 생활에 초대한다고 공언하였다. 그래서 Findlay는 골로새 거짓 교사들을 철학적, 유대주의적, 환상적, 금욕적인 기독교인들로 보았다.

한편 Herman Ridderbos는 이 이단의 성격을 두 가지 요소로 요약하였다.

① 이들은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지식과 통찰을 내세우는 종교적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자신을 말하는 자들이다. 골로새서에 있는 ‘지혜’ ‘지식’ ‘통찰’을 나타내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골로새 교회의 이단 사상의 성격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Ridderbos는 이 이단을 취급할 때 이방적-헬라적 세계에서의 영향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② 이 이단은 강한 유대적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전통적 유대주의가 아니라 영생주의이며, 금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다. 그래서 Ridderbos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준거로 이 거짓 교훈의 성격이 유대주의적인 요소와 이방의 사변적 요소가 서로 얹혀 있는 혼합적 종교 사상으로 추론한다.

1. 이단 종파의 공통점

- (1) 대부분의 이단 종파의 창시자들이나 교주들은 기독 교회의 성직자들이거나 혹은 광적인 일반 신자들이다

통일교의 문 선명은 평양 광혜교회의 지도자였고, 전도관의 박태선은 남대문 장로교회의 집사, 창동 장로교회의 회목장로였다. 몰몬교의 Joseph Smith 2세는 감리교의 열성분자였고 안식교의 William Miller는 침례교회의 회원이었고 크리스챤 사이언스의 Mary Baker Eddy는 회중교회의 교인이었고, 여호와의 증인의 창설자 Charles Taze Russell도 회중교회의 신자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기독교회의 미온적인 신앙과 지도자들의 교권적인 횡포에 환멸을 느꼈다는 것이다.

- (2) 이단 종파의 창시자나 교주는 10대에 신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통일교의 문 선명은 16세 때에 주님이 나타나시어 “아직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략으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므로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네가 대신하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여 ‘문예수’로 자처한다.

전도관의 박태선은 그가 신앙 생활을 시작한 지 21년 되던 해에 “신으로부터 성령의 새 피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감람나무, 이진 자, 영모로서 군림한다.

몰몬교의 Joseph Smith는 15세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에게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크리스챤 사이언스의 Eddy부인은 17세에 환상을 보았고, 여호와의 증인의 Russell은 17세에 깊은 신앙적 회의주의에 빠져 자아의 돌파구를 찾고

있을 때에 신비적인 환상을 보았다고 한다.

(3) 자신들의 정경을 갖고 있다

통일교는 성약서 즉 원리강론을, 전도관은 피의 복음 곧 오묘 원리를, 몰몬교는 몰몬경을, 크리스챤 사이언스는 과학과 건강, 여호와의 증인은 새세계 번역 성경, 안식교는 안식교 교리문답집을 그들의 정경으로 하고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삼는다. 이는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고 성경에 가감하는 행위이다.

(4) 교주를 신격화한다

교주를 절대자로 추앙하는데 보이지 않는 신보다 보이는 신을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대신 교주를 중심한 대속을 갈망한다. 그래서 ‘재림예수’ ‘동방의 의인’ ‘최후의 제사장’ ‘하나님의 대리자’ ‘말세의 종’ ‘메시아’로 자처한다.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다. 그 결과 기독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파생된 것이 교주들의 스캔들(Scandal)이다.

통일교의 소위 피가름 또는 영체교환, 전도관의 생명수와 안찰 사건, 몰몬교의 일부다처주의(一夫多妻主義), 안식교의 예수 재림에 대한 불발탄으로 야기된 소동, 크리스챤 사이언스의 신유의 은사에 의한 만병통치의 치사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5) 특수 분야에 매력을 갖고 있다

이단 종파들은 대부분이 포교에 있어서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통일교는 승공과 피가름을 빙자한 성행위와 합동결혼식, 전도관은 신앙촌, 천년설의 Utopia와 교인들을 고용하여 기업과 행상, 몰몬교는 철저한 몰몬식 교육과 일부다처주의 원리에 의한 공동집단 생활과 포교, 안식교는 토요일 예배와 문서활동, 크리스챤 사이언스의 신

유의 은사와 매스콤을 통한 경제 기반 구축, 여호와의 증인의 문서를 통한 축호 전도의 매력을 각각 갖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신의 명령을 잘 준행한다고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우월성을 주장하며 포교 방법은 게릴라식 전법을 동원한다.

III. 이단의 발생 동기와 그 특색

1. 여호와의 증인

(1) 연혁

미국 펜실베니아주 Pittsburgh라는 도시에 1852년에 출생한 Charles Taze Russell이 이 운동의 설립자이다. 어렸을 때 그는 영원한 고통에 대한 교리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 교리를 폐기시킬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다.

1870년, 즉 그가 18세 되던 때 Pittsburgh에다 성경 공부반을 조직하였고 1871년에 그가 group의 목사로 선임되었고 1879년에 <Zion's Watch Tower>란 잡지를 출간하기 시작했다. 이 잡지는 매월 수백만의 독자를 가지고 있다. 이 Watch Tower란 잡지의 내용은 주로 성경 공부이며 그 지사가 100개국 이상에 자리잡고 있으며 선교사 수만 해도 굉장하다. 1916년 Russell이 사망한 이래 Joseph Franklin Rutherford가 계승자가 되었다. 그의 지도 밑에서 이 이단 종파가 급진적인 발전을 보았다. 그가 100여 종의 서적과 팜플렛을 만들어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하였다. 1944년에 세상을 떠나자 Nathan H. Knorr가 새 지도자가 되었다.

(2) 명칭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은 이사야 43:10-12에서 취했다. 그

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명칭이 사이비 종파에 적용되어질 수 없는 이유는 이사야 43:1에 보면 원래 이스라엘에게 말씀한 내용이며,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에 성령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심은 사도행전 1:22, 2:32, 3:15에서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또 5:30~32, 50:39~43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증인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파에서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데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거짓 증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다.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참 증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자, 영생을 소유한 자(요일 5:10~13)이다. 로마서 8:16, 17, 요한복음 1:12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만이 여호와의 증인이 될 참 권세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리

① 그리스도의 신격을 부인한다. 그들은 이 교리의 근거로써 골로새서 1:15, 계시록 3:14을 내세운다. J. F. Rutherford가 지은 「In Happ of God」이란 책 p.98에 “로고스는 여호와의 첫 번째요. 유일하고 직접적인 피조물”이라고 썼다. 그리스도는 지음을 받지 않으셨고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다. 골로새서 1:16에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다.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 동시에 그는 천사를 포함한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골로새서 1:15의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란 말은 1:18에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란 말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② 또한 J. F. Rutherford는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란 책에서 “그리스도는 능하신 (mighty) 하나님이지 전능하신 (Almighty)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이다. 이 사실은 성경 여러 곳을 통하여 증명된다.

①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사 9:6; 마 1:23; 요 1:1)

② 그리스도는 경배를 받으신 분이시다. (마 2:11)

③ 그리스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막 2:5~7),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11:43), 세계를 창조하시고(골 1:16), 지으신 세계를 유지하시고(골 1:17; 히 1:2, 3), 이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신성을 증거한다. (요 2:11)

④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들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한다.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다(마 28:18). 편재하신다(마 28:20). 전지하신다(요 21:17). –인간의 마음도 아시고 머리털도 헤아리신다. 영원하시다. (요 1:1)

⑤ 그리스도는 세상에 계셨을 때에, 인간으로만 계셨고, 인간으로 죽으셨다. C. T. Russell이 「Studies in the Scriptures」라는 책 제 5권 p. 453에서 “인간 예수는 죽으셨다. 영원히 죽으셨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神人)이시다.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었음이 틀림없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딤전 3:16).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셨을 때 그의 신성을 하늘에다 그대로 두고 오신 것이 아니다. 빌립보서 2:5~7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으셨다는 사실은 고린도전서 15:12~20에 비추어 거짓 증거임이 확연하다.

⑥ 그리스도는 원래 미가엘로 알려진 창조함을 받은 천사이다. C. T. Russell이 지은 「성경연구」란 책 제 5권 p. 84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다음 가는 천사들 중의 제일인자로서 大天神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이름은 미가엘로서 하나님의 대표자였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미가엘이 아니었다.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나았으며 천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였다. 경배를 받는 자는 경배하는 자보다 뛰어나시다. (히 1:4,6)

⑤ 그리스도 없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이들도 구원얻을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기회는 이 세상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후 6:2; 히 9:27; 잠 29:1).

1). 성경에는 죽음이 마지막이란 내용의 성구가 많다.

마 25:41 영원한 불 (Eternal fire)

마 8:12 어두움 (Darkness)

울며 이를 간다 (Wailing and gnashing of teeth)

마 13:42 풀무불

제 14:10,11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음

마 25:46 영벌 (Eternal punishment)

롬 2:5 진노의 날, 하나님의 판단

살후 1:9 영원한 멸망의 형벌

마 10:15 심판날

2. 제7일 안식일교 (Seventh Day Adventists)

(1) 연혁

New York의 Low Hampton에 살았던 William Miller가 그리스도께서 1844년에 재림할 것을 예언하였다. 그는 이 예언이 다니엘서 8:14에 근거한다고 했다. 그런데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Miller의 오류를 변명하기 위하여 Ellen White라는 여자는 그리스도가 1844년에 재림하셨는데 제1차 구속 사역으로 들어가셨다고 하였다. 이 White 여사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제3단계 구속 사역을 ①십자가에서 죽으심 ②1844년에 시작, 성소에 들

어가셔서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특히 율법 중 제4계명 (안식일 지키는 문제)을 지키는지에 의하여 각 사람을 조사하는 단계 ③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 이는 그리스도의 속죄일 (Day of the atonement)에 시작.

그들은 “안식일 (구약의 제일 마지막 날, 즉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여 제7일 안식일 교회라 칭하게 되었다.

주장하기를 교황이나 적그리스도가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었다. 일요일 (주일)을 지키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지옥에 갈 것이다. 어떤 이는 로마 황제 Constantine이 이 일자를 바꾸었다고 한다.

①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은 그리스도 부활을 기념하면서 초대 교회가 지켰다. ‘안식 후 첫날’ - ② 예수께서 5회나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심 ③ 성도들이 이 날에 모임 ④ 연보를 드림 ⑤ 땀을 땀 (성찬식) ⑥ 요한은 주의 날에 계시를 받음 ⑦ 성령이 강림하심, 그리고 2,000년 동안 크리스천들이 이 날을 지켜 왔다.

② 우리의 구원 문제가 토요일이나 주일을 지키므로 얻어지는 것 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③ 안식일이 바뀐은 첫 창조가 죄로 더러워졌으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재창조된 것이다. 구약은 안식일을, 신약은 주의 날을 말한다. 초대 교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근거로 주의 첫날을 지켰다.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Sabbath)을 바꾸신 것이 아니다. 날 (day)을 바꾸셨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자유의 날, 창조주의 날, 마지막 날이라면 신약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은혜의 날, 부활하신 날, 구속주의 날, 첫날인 것이다.

(2) 교리

① 토요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재림시 144,000명만 구원을 얻는데 이들이 곧 제7일 안식일 교회 교인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구원은 행함으로 써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써(엡 2:8-9; 행 16:31) 얻는다.

[2]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완전히 없어진다.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저들은 영생 (Eternal life)과 영존 (Eternal existence)을 동일시한다.

그러나 영생은 영존 이상의 것이다. 인자는 존재하지만 생명은 없다. 요한일서 5: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에서 언급된 생명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의 생명이다. 또한 저로 죽은 인간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다. “죽은 이들로 죽은 이를 장사케 하라”는 “존재하지 않는 이가 존재하지 않는 이를”이란 말이 아니다. 이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육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지낸다는 뜻이다.

3. 몰몬교

몰몬교는 13개조의 신앙신조가 있다. 몇 가지를 비판하면 첫째, 성부와 성자는 살과 뼈가 있는 육체를 입고 있으며 인간의 심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원죄의 전가를 부인한다. 아담의 지은 죄가 후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 로마서 5:12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주장이다. 세째로 구원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자신의 행위로 얻음을 주장한다. 즉 몰몬교의 의식 제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로마서 3:20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선언한다. 네째로 성경 외에 몰몬경도 믿는다. 또한 그들은 계시를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되었다고 믿는다.

4. 통일교 (Unification Church)

공자, 석가, 예수까지도 문 선명은 부인한다. 예수는 사생아요, 마리아는 창녀라는 모독적인 발언을 한다. 그의 세력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 뻗어 있다. 이상하게도 정권잡은 자를 빼려 부수라고 가로친다. 복잡한 결혼 편력, 그리고 공산주의·민주주의를 폐기하고 공생, 공용, 공의를 외친다. 이들은 조직이 아주 강한 강점을 갖고 있지만 이제 그 조직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 종파의 생명이 일시적일 것으로 보인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서 최근 보수 계통의 농어촌 교회에 물량공세까지 펴고 있다. 참 부모 문 선명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는 전도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대신 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감람나무에서 새 하나님으로 승격, 84년 11월부로)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십자가는 실패하고 Sex로 타락했으니 (창세기 인간 타락을 왜곡해서) Sex로 복귀해야 한다며 피가름의 원리를 주장한다.

5. 전도관

한국 예수교 전도관 부흥협회로 박태선이 조직하였다. 남산 공원 대광장의 부흥 집회를 계기로 시작하여 영모, 동방의 의인, 감람나무 등으로 자신을 부른다. 통일교는 전도관을 작은 집이라 부른다. 핵심사상 및 교리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로 받은 순수한 피가 변질되었다. 이 순수한 피에 불순물이 섞여 변질되고 썩어졌다. 이 더러운 피가 그의 후손들에게 유전되었다는 일종의 Sex적인 타락 원리이다.

그들의 구원론에 있어 Sex로 타락하여 더러운 피가 섞여 있는 자들이 동방의 의인, 이진 자, 감람나무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동방의 의인 구원설은 이사야 41:1-29에 근거 주장한다. 성령론에 따르면 성령은 더러운 피를 정화시키신다. 박 태선은 이 성령을 평택의 피난 생활 중에서 받았다고 한다.

말세론은 감람나무가 나타나서 보혈의 현장으로 원수 마귀를 발등상 만들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 그래서 박 태선은 이진 자라고 한다.

각 이단종파의 재림시기를 보면 통일교는 현세, 암식교는 1844년 10월 22일 이미 재림,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 10월 1일, 전도관은 박 태선의 출현으로 한정한다.

심판론에서 첫째 심판은 감람나무의 심판이며, 둘째 심판은 천년 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세째 심판은 신천신지로서 최후의 심판을 뜻한다. 이것은 모두가 박 태선을 중심한 심판론이다.

IV. 이단종파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

① 이단 종파들은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다. 그들은 성경 외에 정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속 대신에 그들의 교주를 중심한 대속을 말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제한 또는 부인하는 비신학적인 것이다.

② 이단 종파들은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다. 비윤리적이란 Sex 윤리에 국한한다. 그들의 교주나 창시자들은 대부분 가정으로부터 벼랑을 밟았으며 그들의 부인들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했다. 통일교의 문 선명은 빈번한 이혼과 4번의 재혼, 전도관의 박 태선도 재혼, 몰몬교의 Joseph Smith는 50명의 부인을 가졌으며, 크리스챤 사이언스의 Eddy 부인은 1번의 이혼과 3번의 재혼, 여호와의 증인의

한국 교회와 이단 운동 / 77

Russell은 그의 아내인 Maria Frances Ackley에 의하여 이혼을 했는데 이유는 Russell의 ‘독단적이고 이기적이며 지배적인 태도와 다른 여자들에 대한 부적당한 행위’였다.

이단 종파들의 교주들은 7계명을 범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의 비윤리적인 사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사회에 추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은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평화와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며 심지어는 반국가적 행위마저 행한다.

③ 이단 종파들은 현일도피주의자들이다. 자기들의 종단을 형성하여 사회와 기독교회로부터 격리한다. 만리장성을 쌓아 놓고 그곳만이 에덴 동산, 천년 왕국, Utopia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현실 세계의 도피, 생의 부정적 태도, 자기 집단의 폐쇄주의를 시도한다. 이들은 자기 집단의 절대화를 구하고 세상의 종말과 재림의 주님이 이내 왔다는 위기의식을 고취시킨다.

이단 종파들은 신학적으로 성경을 가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제한 내지 부인한다. 역사적으로는 영지주의 (Gnosticism)와 같은 혼합주의, 윤리적으로는 비성경적 윤리, 사회적으로는 물의를 일으키는 반사회적 집단이다.

V. 결론

오늘날의 모든 이단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고대 이단들과 그 근거를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혼합주의와 합리주의는 항상 이단으로 치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보다는 자신의 이성이나 경험을 앞세울 때, 항상 인간이 진리의 심판자가 됨으로써 이단 사상의 극단주의에 빠져들어 가고 만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적 반성과 경종을 배워야 한다. 왜냐

하면 이단 종파의 발생은 ①기독교가 신앙적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일어났고 ②이단에 대한 무관심 또는 소홀히 할 때 나타났고 ③교회 지도자들의 교권적 횡포와 독선 그리고 세속화, 그리고 자유주의 화될 때 ④성직이 직업 의식으로 전락될 때 이 틈을 타서 생겨났고 ⑤문화의 영역에서 기독교가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독교 교육을 통해 성경적 신앙과 신학, 그리고 윤리를 바로 가르치고 강조해야 한다. 진리를 거스리는 이단을 항상 주의깊게 살피고 기성 교회의 선한 양들을 바른 교훈으로 이끌고, 성경을 통한 구원의 확증과 구원의 진리 선포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나아가서 이단에 속한 무리보다 더 뜨겁고 열심있는,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가르쳐야 한다.

이단은 정통적인 기독교의 역사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시적이며 급작한 출현을 해왔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교주 자신에 있음을 보게 된다. 그들은 성경을 왜곡 해석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도리어 썩어질 정욕거리로 변질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므로 무서운 불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다. (계 21:6; 요일 4:1-6)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 힘써 기도해야 할 것이다.

성령의 불꽃이 한국을 휩쓸 때*

조나단 고프트 저
김 형 규 역

한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것에 관하여 쓰고자 한다. 한국의 신자들이 이루어 놓은 일과 그들의 회생을 생각할 때 나는 주께 얼마나 한 일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고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중국의 신자들에게 이 이

* 다음의 글은 강의 중에 인용했던 소책자를 번역한 것이다. 내용이 길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함께 싣는다.

저자인 조나단 고프트는 1859~1936년까지 살았던 캐나다인으로 중국 선교사이다. 그는 중국에서 50년 가까이 영웅적인 헌신을 한 사람이다. 그는 그의 생애를 성령께서 하신 일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 글은 1907년 부흥운동 전후의 한국 교회의 뜨거움을 소개하면서 그의 조국 교회에 경종을 올리고자 한 글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를 아름답게 보았다.

이 글에서 한국 초대 교회 형편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분명히 보게 되고, 따라서 오늘의 한국 교회가 초기의 순수성에서 많이 멀어진 것을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 글은 성공적인 선교의 한 전형을 보게 해준다.